

《鄉藥集成方》의 編纂에 對한 小考

鄭 勉

I. 序 論

《鄉藥集成方》은 世宗 13年秋(1431년)에 集賢殿 直提學 俞孝通, 典醫監正 盧仲禮, 同副正 朴允德에게 命하여 濟生院에서 간행된 《鄉藥濟生集成方》의 舊證과 舊方을 기본으로 하여 다시 鄉藥제방을 취하고, 授檢에 빠짐없이 널리 諸方書를 編會하여 일년여에 걸쳐 分類 添增하여, 세종 15년 6월에 완성된 종합적인 鄉藥醫書이다. 鄉藥이용이 활발하게 된 것은 高麗中期以後 고려 내정의 문란과 많은 외침으로 정상적인 醫療施惠를 받을 수 없었던 시대상황의 영향 때문이었다.¹⁾ 즉 지배계층에 있는 관료나 경제력이 있는 일부 사람들을 제외한 大部分의 下層 百姓들이나 窮村僻地人들은 값이 비싼 中國藥材로 치병할 처지가 못되었기 때문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약재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²⁾ 이러한 周邊藥材를 이용해 질병을 치료한 經驗이 集積된 것이 《鄉藥救急方》, 《三和子鄉藥方》, 《鄉藥古方》, 《東人經驗方》, 《鄉藥惠民經驗方》 등의 鄉藥方書들이다.

이러한 鄉藥方書들은 조선이 개국한 뒤에도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이용되었으며, 조선의 중앙정부도 鄉藥을 권장하는 정책을 폈다. 그러나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鄉藥이 대부분 醫學理論을 운용하여 사용되는 것이 아니고, 日常生活에서 經驗에 의해서 疾病을 치료한 臨床內容이 주류를 이루었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鄉藥을 장려함과 동시에 鄉藥의 藥性을 鑑別할 필요가 있었고, 藥의 올바른 採

1) 邊太燮, 농민천민의 난, 한국사 권7, 서울 PP.73-146.

한국사연구, 서울 1978, P.19.

姜晉哲, 韓國土地制度史, 문화사대계 3편, 서울, 1980.

2) 鄉藥救急方 跋文 “若京師大都則醫師有之蓋在窮鄉僻郡者忽遇蒼卒病勢甚緊良醫難致”

取法을 알려야 했으며, 또한 기존의 鄉藥 방서들을 정리하여야 했다. 이에 太祖 6년8월에 일반 백성들의 의료기관으로 濟生院을 설치하여 일반 백성들을 구료하였으며, 한편으로는 各道 약재를 수납하였고, 鄉藥방서들을 편집하여 《鄉藥濟生集成方》을 편찬하였다.³⁾

조선 초기의 鄉藥獎勵政策과 《鄉藥濟生集成方》의 편찬은 世宗대에 이르러 보다 구체적이고 강력한 鄉藥獎勵政策의 기틀이 되어 각종의 鄉藥獎勵政策을 수행하게 되었으며, 鄉藥을 집대성한 《鄉藥集成方》이 탄생하게 된 것이다.

본고에서는 《鄉藥集成方》의 편찬 배경을, 1)世宗대 이전까지의 鄉藥 이용과 鄉藥방서, 2)世宗대의 鄉藥政策, 3)《鄉藥集成方》에 인용된 方書와 醫家를 분석하여 宋代醫學이 《鄉藥集成方》에 미친 影響 등으로 나누어 考察하고 아울러 《鄉藥集成方》의 학술적 特徵을 간략히 論述하고자 한다.

II. 本 論

1)世宗代 以前까지의 鄉藥利用과 鄉藥方書

鄉藥이라는 用語의 기원은 확실치 않는데, 金은⁴⁾ 《鄉藥救急方》에서 처음 사용했다고 하였고, 安은⁵⁾ 《鄉藥古方》이 효시라고 보고 있다.

高麗의 官人세계의 身分位界秩序를 표시하는 官階중 唐職에 대한 「鄉職」, 즉 鄉職은 官人 세계와는 구별되는 특수한 國風的 질서를 말한다. 여기서 「鄉」의 뜻은 鄉歌, 鄉藥 등의 用例에서 보이는 國風, 高麗風을 의미하는 것이다.⁶⁾ 따라서 鄉藥의 「鄉」字도 國風, 高麗風의 의미로 鄉藥은 國產藥材의 中國產藥材인 唐藥에 대한 高麗人의 自主的 名稱인 것으로 사려된다.

自國產 藥材인 鄉藥은 高麗中期以前부터 이용되어 왔을 것이나, 高麗中期以後, 보다 광범위하게 利用되어, 풍부한 疾病治療 經驗과 知識을 축적하게 되었다. 이러한 理由는 高麗가 中期以後 政治社會的으로 不安定하였고, 많은 外侵을

3) 金斗鐘, 上揭書, P.195.

4) 金斗鐘, 前揭書, P.141.

5) 安德均, 世宗대의 鄉藥政策, 慶熙韓醫大論文集, 서울, 1979, P.81.

6) 姜晉哲, 중세사, 震檀學報 57, 서울, P.25.

받아 一般百姓들이 安定된 生活을 영위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高麗의 賑恤機關으로 黑倉, 義倉, 常平倉, 東西大悲院, 惠民局, 救濟都監, 濟危寶 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나,⁷⁾ 이러한 內亂과 外侵의 와중에서, 또 國家財政이 枯渴된 상태에서 賑恤機關이 正常的인 機能을 수행할 수 없었으므로 一般百姓들은 스스로 자신들의 고난과 질병을 극복할 수 밖에 없었다. 즉 그들의 疾病은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藥材로 經驗에 의해 치료한 것이다. 집안의 어른이나 동네어른의 治療經驗이 醫師역할을 한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自救的 疾病治療 經驗과 知識은, 醫學의 實用的인 面과 應急處置에 대한 醫學發展을 胚胎시킨 것이다. 이러한 自救的 질병치료 經驗과 知識의 所産이 《鄉藥救急方》, 《三和子鄉藥方》, 《鄉藥古方》, 《東人經驗方》, 《鄉藥惠民經驗方》 등의 鄉藥方書들이다. 朝鮮이 開國한 뒤에도 초기에는 高麗의 醫療制度를 거의 답습한 상태였으며, 太宗 때에 이르러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鮮初에도 鄉藥이용이 장려되었는데, 太祖는 각도에 醫學教授 一人을 보내어 生徒들을 뽑아 《鄉藥惠民經驗方》을 학습케 하였으며, 教授官에게 採藥丁夫들을 定屬시켜 때에 맞도록 藥材를 채취하여 病者를 치료케 하였고, 濟生院을 새로 창설하여 各道로부터 鄉藥을 수납케 하였다.⁸⁾ 또한 鄉藥方書를 수집하여 《鄉藥濟生集成方》을 반포하여, 鄉藥보급에 힘썼다. 太宗 때에 高麗 高宗때 大藏都監에서 간행된 《鄉藥救急方》을 重刊한 것도, 이러한 鄉藥장려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鮮初의 鄉藥獎勵政策과 《鄉藥濟生集成方》의 編纂은 世宗대에 이르러 보타 體系的이고 광범위한 鄉藥獎勵政策의 바탕이 되었으며, 鄉藥方을 집대성한 《鄉藥集成方》 간행의 기초가 되었다.

2) 世宗代의 鄉藥政策

世宗代의 鄉藥獎勵政策은 크게 3가지 面으로 추진되었는데, 첫째로는 鄉藥과 當藥과의 藥效鑑別, 둘째로는 鄉藥需給 調節을 위한 鄉藥產地調查와 採取時期整理, 셋째로 鄉藥方書의 刊行이다. 鄉藥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鄉藥과 唐藥과의

7) 鄭洪澤, 高麗時代 寶에 관한 研究, 고려대, 1983, PP.12-23.

8) 金斗鐘, 前掲書, P.195.

약효를 검토하여, 鄕藥중에 그 藥性이 唐藥에 일치되는 것이 있을 때에는 곧 鄕藥으로 대치케 하였다. 이와같이 鄕藥을 장려하고 唐藥의 濫用을 방지하는 데에는, 먼저 鄕藥에 대한 藥性的 鑑別을 엄격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따라 世宗3년(1421년)에 藥理에 정통한 黃子厚를 副使로서 明에 보내어, 우리나라에서 생산치 않는 唐藥을 구해 오게 하였으며, 同5년(1423년)에 金乙亥, 盧仲禮, 朴堧 등을 明에 보내어 國產 藥材에 대한 질의를 거듭하여 鄕藥 62종 중에서 中國產과 같지 않은 丹蓼, 漏蘆, 柴胡, 防己, 木通, 紫莞, 威靈仙, 白斂, 厚朴, 窮芎, 通草, 藁本, 獨活, 京三稜 제8종은 사용치 못하게 했으며, 唐藥을 파는 생약포의 관인을 明에 보내어 직접 당재를 매입케 하였다. 또 同12년(1430년)에 盧仲禮가 明에 갔을 때 국산 약재의 진가를 물었고, 同13년(1431년)에 來朝한 明의 太醫 張本立에게도 問藥한 일이 있었다. 鄕藥을 鑑別하기 위하여 鄕藥과 당재들을 비교 연구하여, 그 藥材들의 形態, 分類, 藥性的 異同等에 이르기까지 상세히 검색하였으며, 專門醫들을 국외에 파견하기도 하였다. 世宗6년(1424년)에 《世宗地理志》를 編纂케 하였는데, 이것은 당시의 각도 각읍의 실태를 統計的으로 조사한 문헌으로 世宗代 政策樹立의 기초 자료가 되었다. 본지에는 각도에서 산출되는 토산품과 그 도로부터 중앙에 貢納하는 藥材들을 기입하고, 그 다음에 각도에 소속된 牧, 府, 郡, 縣들에 따라 闕貢, 藥草, 土產物 등이 자세히 조사되었다. 약재는 303종이 실려 있는데, 植物性 藥材가 243종, 動物性 藥材가 46종, 鑛物性 藥材가 14종이 실려 있다. 이로써 全國 각도 각읍에서 產出되는 藥材들의 分布實態를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으며 藥材를 生產品과 種養品으로 구분하여 열거하였다. 이러한 조사들은 鄕藥의 採集과 栽培를 구분하여 널리 장려해 온 결과에 의한 것이다. 藥材의 藥效는 採取時期와 貯藏方法에 따라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다수의 藥草들을 採取 收集하는 데에는 藥材에 대한 系統的 知識이 요구된다. 世宗13년(1431년)에 藥草의 채취에 적합한 月令을 정한 《鄕藥採取月令》을 간행하였다. 藥草名을 채취에 적합한 月令에 배치하고, 藥草名 아래에 鄕名을 史讀式으로 표기하고 있어, 採藥丁夫들이 알기 쉽게 했다. 太祖때 간행된 《鄕藥濟生集成方》을 기본으로하여, 다시 鄕藥方書와 經驗方, 中國醫書들을 聚集하여서 世宗15년(1433년)에 鄕藥方을 總 網羅하여 집대성한 《鄕藥集成方》을 간행하였다.

3) 《鄉藥集成方》에 인용된 方書 및 醫家와 宋代醫學의 影響

《鄉藥集成方》에는 많은 醫書와 醫家들이 인용되어 있는데, 그 중 우리의 固有醫書인 《三和子鄉藥方》, 《鄉藥易簡方》, 《鄉藥救急方》, 《鄉藥惠民方》, 《御醫撮要方》, 《東人經驗方》, 《鄉藥古方》, 《濟衆立方》 등을 除外한 나머지는 200여종의 中國方書와 醫家들로 아래와 같다. (가나다 순으로)

《金匱方》, 《葛氏肘後方》, 《經驗良方》, 《經驗秘方》, 《金匱鉤玄》, 《簡奇方》, 《簡要濟衆方》, 《居家必用》, 《經驗後集》, 《古今錄驗方》, 《簡易方》, 《經驗方》, 《廣利方》, 《脚氣治法總要》, 《脚氣精義》, 《經驗海上方》, 葛稚川, 《葛氏方》, 《近效方》, 《金匱玉函》, 《廣濟方》, 《鬼貴方》, 《南陽活人書》, 《南北史》, 《銅人經》, 《東垣試效方》, 《得效方》, 《東垣用藥眞珠囊》, 《良濟備急》, 《斗門方》, 《圓經本草》, 《唐本註》, 《道書八帝聖化經》, 《唐韋宙獨行方》, 陶隱居, 《杜壬方》, 譚氏, 《譚氏小兒方》, 《孟詵》, 《梅師方》, 《冢亭客話》, 《聞驗方》, 《別說》, 文潞公, 《婦人大全良方》, 《保童必要》, 《脾胃論》, 《拔粹方》, 《本草》, 《兵部手集》, 《百一選方》, 《本事方》, 《北夢鎖言》, 《本草衍義》, 《百要方》, 《普濟方》, 《本草集要》, 《范汪方》, 《百草散》, 《博信方》, 《普救方》, 《備急方》, 《備急大全》, 《傷寒論》, 《巢氏病源》, 《食醫心鑑》, 《食醫心經》, 《產寶》, 《聖惠方》, 《三因方》, 《神效萬全》, 《珣碎錄》, 《傷寒類要》, 《修月魯般經》, 《傷寒明理論》, 《宣明論》, 《澹療方》, 《傷寒指掌圖》, 《聖濟總錄》, 《瑞竹堂方》, 《袖診方》, 《省翁活幼可義》, 《神效名方》, 《神效方》, 《山居四要》, 孫真人, 孫用和, 《食療》, 《孫尚救急》, 《勝金方》, 《聖效方》, 《小品方》, 《洗冤錄》, 《修真神仙方》, 《孫真人枕中記》, 《修真秘旨》, 《孫真人備急》, 《十全博救方》, 《孫尚藥方》, 《續命方》, 《孫兆方》, 《乘閑方》, 《徐云效驗方》, 《孫真人食忌》, 蘇學士, 《塞上方》, 《三元延壽書》, 《續十全方》, 心存仲, 《沈存仲筆談》, 《產育保慶集》, 《澹療集驗秘方》, 《產經》, 《徐明中方》, 《十全方》, 《十全博濟方》, 《產科保慶集》, 《選奇方》, 《小兒客氣方》, 《素問藥證》, 《神效方》, 《史記》, 《衛生續方》, 《王氏十濟方》, 《良濟方》, 《良濟備急方》, 《日華子》, 《楊氏家藏方》, 《藥性論》, 《楊氏產乳》, 《靈苑方》, 劉涓子, 《玉山韓光》, 李世勣, 《養生必用方》, 《溫隱居求嗣保生篇》, 《王氏集驗方》, 王碩膚, 《易產滑胎方》, 《延年方》, 《楊氏方》, 《王氏濟衆》, 《五臟論》, 《王岳產

書》，《衛生十全方》，《易簡方》，《衛生方》，《王氏易簡方》，《仁齊直指方》，《嚴氏濟生方》，《御藥院方》，《玉龍歌》，《衛生寶鑑》，《醫方大成》，《醫方集成》，《永類鈴方》，《醫林方》，《烟霞聖效方》，《外科精要》，《養老奉親書》，《養生方》，《劉禹錫傳信方》，《外臺秘要》，《外臺延年方》，《約虞世》，《龍魚河圖》，《千金方》，《千金翼方》，《川玉集》，《瘡科精義》，《崔元亮方》，崔氏，《崔元亮海上方》，《纂圖方》，《初虞世》，《資生經》，《朱氏集驗方》，《濟生方》，《集驗方》，《陳藏器》，《張仲景》，張子和，《子母秘錄》，《陳室中方》，《姚氏方》，姚和衆，《張氏六門方》，《直言治療方》，張先生，張文仲集成方，姚大夫，《錢相公篋中方》，《支大醫方》，《陳無澤求子論》，《褚尚書求子論》，《陳氏方》，陳無澤，姚壬，《錢氏方》，《全嬰方》，《指迷方》，《通眞子傷寒括要》，《太清諸草木方》，《太平廣記》，《始產救急方》，《湯氏必效方》，《抱朴子》，《和劑局方》，《海上名方》，《夏禹神仙經》，《活人總括》。

上記 方書의 著作年代와 醫家年代를 다 추적 확인할 수는 없으나, 大部分이 宋代以前의 方書와 醫家들이었고, 金元代의 方書는 《醫方大成》，《得效方》，《醫方集成》等 소수에 불과하다.

《鄉藥集成方》은 특히 宋代의 《太平聖惠方》을 주로 引用하여 病論을 설명하였고, 針灸目錄은 《資生經》에서 인용하였으며, 針灸療法은 《資生經》，《千金方》，《玉龍歌》，《주後方》 등의 唐宋代의 醫書를 인용하였고, 鄉藥本草는 《日和子》를 가장 많이 인용하였는데, 《圖經》，《藥性論》，《陶隱居》，《唐本註》，《陳藏器》，《蜀本》，《雷公》，《眞珠囊》，《抱朴子》 등의 方書도 인용하고 있다.

《鄉藥集成方》에 引用된 方書는 主로 唐宋代의 方書들이 大部分이며, 特히 宋代醫書를 그 根幹으로 기술하고 있기 때문에, 《鄉藥集成方》의 編纂 背景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宋代醫學의 特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宋代의 思想的 潮流인 性理學의 盛行은, 宋代의 學術界에 理論에 對한 研究를 촉진시켰다. 또한 科學 및 文化事業의 發展과 製紙術, 印刷術의 發明은 醫學知識을 普及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⁹⁾ 이러한 結果로 醫學著作이 大量으로 出

9) 洪元植, 中國醫學史, 동양의학연구소, 서울, PP.140-150.

版되었으며, 醫學知識이 크게 보급되었다. 《聖濟總錄》과 《太平聖惠方》의 刊行으로 某病에는 某藥을 쓴다는 式의 행태가 유행하여, 疾病과 治療사이에 理論的 關係가 없어져, 治療가 處方을 시험하는 手段이 되는 病幣도 발생하였으나, 이러한 趨勢의 發展은 必然的으로 새로운 臨床經驗의 基礎 위에서 새로운 理論의 開發과 研究에 촉진 작용을 했다.

이러한 臨床醫學의 發達과 더불어 傷寒論研究가 활발하였으며, 運氣學說이 盛行되었고, 特히 本草와 鍼灸가 발달하였다. 宋代의 이러한 時代思潮는 《鄉藥集成方》이 編纂되었던 世宗代의 時代思潮와 비슷하다. 宋代 經學의 集大成이라고 볼 수 있는 《四書五經大全》과 《性理大全》이 朝鮮에 들어온 것은 世宗 元年이었는데, 世宗은 集賢殿學者들과 晝夜로 이 《性理大全》과 《四書五經大全》을 研究하였다.¹⁰⁾ 世宗은 印刷術을 改革하여 發展시켰고, 종이를 충분히 공급하기 위하여 造紙所를 設置하였다.¹¹⁾

이와같이 宋代와 朝鮮의 世宗代에는 印刷術및 造紙術이 발달하였고, 原理를 糾明하려는 科學精神이 유행하였으며, 대량의 出版으로 知識普及이 원활하였던 점 등 양국의 時代思潮가 비슷하였다. 또 醫學面에 있어서도 《太平聖惠方》이나 《鄉藥集成方》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간 蓄積된 治療經驗을 整理하고, 疾病을 보다 理論的으로 糾明하려는 연구태도를 엿볼 수 있다.

《鄉藥集成方》은 《鄉藥救急方》과 달리 疾病과 治方만을 羅列하지 않고, 宋代醫書를 引用하여 疾病의 原因을 설명하고 方文을 열거하였다. 하나의 疾病에 많은 治方을 열거해 번잡한 단점은 있으나, 이러한 것은 疾病에 대한 多樣한 治療經驗을 망라하여 收集한 결과로 보인다.

III . 結 論

《鄉藥集成方》은 959種의 病證과 10706種의 方文, 鍼灸法 1416條, 鄉藥本草, POSEB 等を 포함한 85卷의 명실공히 종합적인 鄉藥方書로, 刊行當時까지의 모

10) 李正浩, 世宗大王의 哲學精神, PP.300-302.

11) 박홍수, 世宗朝의 科學思想, PP.396-401.

은 治療經驗과 이용했던 鄉藥을 體系的으로 분류하고 아울러 그 出典을 밝히고 있다. 질병이 57大綱門과 959條目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그 내용은 六淫外邪, 雜病, 身體部位別疾病, 外傷疾患, 救急疾患, 婦人科疾患, 小兒科疾患 등으로 요약된다.

《鄉藥集成方》의 編纂은 첫째로, 《鄉藥集成方》간행 당시까지 일반백성들이 鄉藥을이용하여 질병을 치료한 傳來의 多樣한 治療經驗을 정리하고, 체계를 세웠으며, 鄉藥本草의 발전을 이루었다.

둘째로, 《鄉藥集成方》을 편찬한 世宗代는 科學的 思考 즉 原理를 연구하는 시대조류의 영향으로, 疾病治療經驗에 바탕을 두고 발전한 臨床醫學에 病의 原因을 理論的으로 규명하려고 노력을 한 것을 엿볼 수 있다.

셋째로, 《鄉藥集成方》의 편찬은 唐宋代 特히 宋代의 方書를 根幹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는 宋代의 方書들이 간행되었던 시대 조류가 世宗代의 시대조류와 서로 비슷했고, 宋代의 方書(특히 《太平聖惠方》)과 《鄉藥集成方》이 기존의 다양한 임상지식을 包括整理해야 하는 똑같은 입장에서 편찬 되었기 때문이다.

《鄉藥集成方》은 蓄積된 臨床知識을 분류 정리하는데 있어, 世宗代의 科學精神과 宋代의 理學精神의 영향을 받아,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편찬되어, 臨床醫學과 鄉藥本草를 발전시켰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우리의 固有醫學이 固有醫學理論이 없어 中國의 理論을 중심으로 정리된 것이다.

< 參 考 文 獻 >

- 1) 鄉藥救急方
- 2) 鄉藥集成方
- 3) 鄉藥採取月令
- 4) 太平聖惠方
- 5) 洪元植, 中國醫學史, 서울, 동양의학연구소, 1984.
- 6) 邊太燮, 農民賤民의 亂, 서울, 韓國史 卷7, 국사편찬위원회, 1973.
- 7) 한우근, 韓國通史, 서울, 을유문화사, 1987.
- 8) 金斗鐘, 韓國醫學史, 서울, 탐구당, 1975.

- 9) 鄭洪澤, 高麗時代의 寶에 관한 研究, 서울, 고려대학교, 1983.
- 10) 洪文和, 世宗代의 鄉藥政策, 서울, 서울대학교, 1975.
- 11) 安德均, 世宗時代의 鄉藥政策, 서울, 경희한의대는문집, 1979.
- 12) 李正浩, 世宗大王의 哲學精神.
- 13) 박흥수, 世宗朝의 科學思想.

